

몽골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간투야**·도미향***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몽골 어머니를 대상으로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3세~5세 유아를 자녀로 둔 몽골 어머니 210명이었다.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한계설정, 온정·격려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거부·방임, 과보호·허용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 의사표현역량과 사회적역량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 중 한계설정, 온정·격려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몽골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코칭, 어머니의 코칭역량, 양육행동, 사회성 발달

논문 투고일 : 2023. 7. 26.

최종심사일: 2023. 8. 30.

게재확정일: 2023. 9. 12.

* 이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사)보육코칭협회 비상근 연구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o, Mi-Hyang, Room 610, Namseoul University Children's Welfare Center, 91, Daehak-ro,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20.

E-mail: domi@ns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는 아동의 발달을 신체발달, 인지 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등 여러 발달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과 상호 발달 및 개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여러 발달 영역 중에서 사회성 발달은 개인주의화나 여러 이유로 인한 상호교류가 결핍되어가고 있는 현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박지현·남원석, 2021).

몽골은 유목민이라는 문화의 특수성을 지니며 발전해왔으며 옛날부터 몽골 부모들이 자녀 발달에서 신체발달을 중심으로 교육을 체계 있게 진행시켜 신체기관의 역할과 능력을 조화 있게 발달시키고, 순발력과 재치, 용기, 참을성 등을 갖도록 하는 총체적인 활동 과정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는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왔다(Nansaldorj Solongo, 2016). 그리고 몽골인은 씨족 사회를 이루면서 삼족 가족 자녀의 소통 방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었다. 이는 몽골의 가정 양육과 민족 양육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옛날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가정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계속 그 교육방식이 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몽골 민족은 목축업을 주로 하며, 이것이 포함된 생활을 하는 환경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에 순응할 줄 알며, 목축 생활을 하면서 강인한 체력과 그에 따른 전통문화를 익히는 교육이다(Badamsuren, 2021).

유아를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핵심관계는 부모이다. 러시아의 유명한 교육사상가 수호믈린스키가 “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이 몽골의 자녀 양육 원칙과 비슷하다. 조상들이 집에서 양육함으로 자녀들을 가정환경에서 올바른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단단하고, 딱딱한 요에 채우고,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2~3세부터 가축, 동물들과 가깝게 하고, 작은 심부름을 시키고, 나이에 맞는 간편한 일을 시켜왔다. 이는 자녀에게 교육이 되고 사회에 나가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S.Solongo, 2018).

Toronto대학 심리학자 교수인 Grusec Joan E.(2011)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위한 첫 요소는 “부모”라고 가르치며, 사회에서 활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때 부모가 돌봄, 관심, 보호하고 진심으로 듣고 이해해주는 일이 중요한데, 자녀란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면

서 스스로 깨닫는 가운데서(Serdamba Bayarmaa, 2014)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아는 자기를 돌봐 주는 사람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확립된다(이혜숙, 2006). 특히 유아기는 부모가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유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유아는 부모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해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형성하기도 한다(배현진, 2009).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 특히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이종임·도미향, 2021). 어머니는 유아가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자 장기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이 시작하는 첫걸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딜라프루즈 이버둘라에바, 2022).

한국에서 연구된 몽골 부모의 양육과 아동 관련 선행연구로는 한국의 부모와 몽골 부모의 양육 태도 비교(Serdamba Bayarmaa, 2014),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 비교(Ganzorig Altanzul, 2021), 한국 거주 몽골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와자르갈, 2012), 몽골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행동 비교(Badamsuren, 2021), 몽골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Gantumur Sarantsetseg, 2018), 몽골 부모의 자녀 양육관에 관한 기초연구(Nansaldorj Solongo, 2016), 몽골 부모의 수용적 양육 태도와 아동의 공감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Enkhbat Narantsetseg, 2021), 몽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Gusu Tumurzaya, 2013) 등이 있다.

또한,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에 수교를 맺은 이후로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37,010명이 한국에 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총 여성은 19,640명이고, 25~44세 여성은 8,530명, 0~4세 유아 1,382명, 5~9세 아동 1,227명이다(통계청, 2022). 한국 내 몽골인들은 몽골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한국의 상대적 고임금과 한문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한국 땅으로 와서 현재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으로서 한국 사회의 하류계층을 형성하고 있다(Narantsetseg,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몽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몽골 어머니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몽골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유아를 자녀로 둔 몽골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2022년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지 구글 서식을 사용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 어머니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발송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2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1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몽골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자녀 수	1명	32.4
	2명	45.7
	3명	14.8
	4명 이상	7.1
자녀 나이	만 3세	44.8
	만 4세	24.3
	만 5세	31.0
자녀 성별	남아	55.2
	여아	44.8
자녀 출생순위	첫째	49.5
	둘째	35.7
	셋째	10.0
	넷째 이상	4.8
어머니 연령	25세 이하	4.3
	26세~30세	28.6
	31세~35세	45.7
	36세~40세	16.7
	41세~45세	3.8
	46세 이상	1.0
어머니 학력	고졸	4.8
	대학교 학사 및 학사과정	33.3
	석사 및 석사과정	44.8
	박사 및 박사과정	15.7
	기타	1.4
한국 체류 기간	1년 이하	11.4
	2년~3년	20.0
	4년~5년	28.6
	6년 이상	40.0
한국 체류 목적	학업	43.8
	취업	56.2
합계	210	100.0

먼저 자녀 수는 2명이 96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 68명(32.4%), 3명 31명(14.8%), 4명 이상 15명(7.1%)으로 나타났다. 자녀 나이는 만 3세가 94명(44.8%), 만 4세가 51명(24.3%), 만 5세가 65명(31.0%)이었고,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16명(55.2%), 여아가 94명(44.8%)으로 각각 분포하였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104명(49.5%), 둘째아가 75명(35.7%), 셋째아가 21명(10.0%), 넷째아가 10명(4.8%)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층은 31세~40세가 96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26세~30세 60명(28.6%), 36세~40세가 35명(16.7%),

25세 이하 9명(4.3%), 41세~45세 8명(3.8%), 46세 이상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석사 및 석사과정인 94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학사 및 학사과정 70명(33.3%), 박사 및 박사과정 33명(15.7%), 고졸 10명(4.8%)으로 분포하였다. 한국 체류 기간은 6년 이상이 84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4년~5년 60명(28.6%), 2년~3년 42명(20.0%), 1년 이하 24명(11.4%) 순이었으며, 한국 체류 목적은 학업 목적이 92명(43.8%), 취업 목적이 118명(56.2%)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사회성 발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McClellan과 Katz(1992)가 사회적 특성 목록표(The Social Attribute Checklist:SAC)를 서정아, 엄정애(2016)가 번안하여 사용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기술(14문항), 개인적 성향(8문항), 또래 관계(2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4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 측정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사회성 발달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개인적 성향	1~8	8	.72
사회적 기술	9~22	14	.85
또래관계	23~24	2	.69
전체		24	.89

2) 어머니의 코칭역량 척도

부모 코칭역량은 도미향, 김근주, 이경주(201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역량(8문항), 의사표현역량(5문항), 의사존중역량(6문항), 자기성장역량(4문항), 성장촉

진역량(6문항), 관계형성역량(3문항)의 6가지 하위요인 총 3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코칭역량 측정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코칭역량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역량	1~8	8	.82
의사표현역량	9~13	5	.85
의사존중역량	14~19	6	.83
자기성장역량	20~23	4	.86
성장촉진역량	24~29	6	.90
관계형성역량	30~32	3	.78
전체		32	.96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Symonds(1949), Schaefer(1959), Becker, DeGroot & Marschak(1964), Baumrind (1973), Crase, Clart & Pease(1978) 등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박주희(200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격려(11문항), 한계설정 (8문항), 과보호·허용(7문항), 거부·방임(8문항)의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거부·방임	6, 10, 14, 17, 18, 21, 31, 33	8	.83
과보호·허용	4, 9, 12, 16, 19, 22, 30	7	.72
한계설정	2, 5, 15, 23, 24, 26, 28, 34	8	.73
온정·격려	1, 3, 7, 8, 11, 13, 20, 25, 27, 29, 32	11	.86
전체		34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코칭역량,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련성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알아봤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코칭역량,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

구분		어머니의 코칭역량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성 발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어머니의 코칭역량	1. 사회적역량	1														
	2. 의사표현역량	.65***	1													
	3. 의사존중역량	.67***	.68***	1												
	4. 자기성장역량	.69***	.62***	.66***	1											
	5. 성장촉진역량	.66***	.74***	.65***	.74***	1										
	6. 관계형성역량	.61***	.71***	.59***	.61***	.76***	1									
	7. 전체	.84***	.87***	.84***	.84***	.90***	.82***	1								
어머니의 양육행동	8. 거부·방임	-.29***	-.21**	-.33***	-.19**	-.16*	-.11	-.26***	1							
	9. 과보호·허용	.06	-.01	.01	.06	.08	.07	.05	.39***	1						
	10. 한계설정	.34***	.41***	.34***	.32***	.45***	.45***	.45***	.05	.17*	1					
	11. 온정·격려	.68***	.63***	.69***	.59***	.67***	.61***	.76***	-.30***	.06	.48***	1				
유아의 사회성 발달	12. 개인적성향	.50***	.52***	.45***	.41***	.44***	.39***	.53***	-.16*	-.03	.31***	.51***	1			
	13. 사회적기술	.43***	.47***	.43***	.38***	.44***	.41***	.50***	-.06	.00	.37***	.46***	.64***	1		
	14. 또래관계	.42***	.34***	.38***	.37***	.33***	.32***	.43***	-.12	.01	.30***	.39***	.50***	.59***	1	
	15. 전체	.51***	.53***	.48***	.44***	.49***	.44***	.57***	-.11	-.01	.39***	.53***	.84***	.95***	.68***	1

* $p<.05$, ** $p<.01$, *** $p<.001$

먼저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57$, $p<.001$)을 보여,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으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코칭역량 하위요인과 전체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어머니의 의사표현역량($r=.53, p<.001$), 사회적역량($r=.51, p<.001$), 성장촉진역량($r=.49, p<.001$), 의사존중역량($r=.48, p<.001$), 자기성장역량($r=.44, p<.001$)과 관계형성역량($r=.44, p<.001$) 순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들 간에도 어머니의 사회적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성장촉진역량, 관계형성역량 등 코칭역량 하위요인은 유아의 개인적 성향,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 등의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r=.32, p<.001 \sim .52, p<.001$)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의사표현역량과 유아의 개인적 성향 요인 간에 가장 높은 상관($r=.5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성장촉진역량, 관계형성역량 등이 높으면 유아의 개인적 성향,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 관련 발달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한계설정($r=.39, p<.001$)과 온정·격려($r=.53, p<.001$)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유아의 행동에 대한 한계설정과 온정·격려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방임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하위요인들 간에는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유아의 개인적 성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16, p<.001$)을 보였으나,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 발달과는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유아의 개인적 성향,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 발달과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개인적 성향($r=.31, p<.001$), 사회적 기술($r=.37, p<.001$), 또래 관계($r=.30, p<.001$) 발달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온정·격려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개인적 성향($r=.51, p<.001$), 사회적 기술($r=.46, p<.001$), 또래 관계($r=.39, p<.001$) 발달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코칭역량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26, p<.001$)을 보였고, 한계설정($r=.45, p<.001$)과 온정·격려($r=.76, p<.001$)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 하위요인 간에도 어머니의 사회적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성장촉진역량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하위요인들은 한계설정 및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코칭역량 하위요인 모두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관계형성역량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β	t	B	SE	β	t
(상수)		1.53	.30		5.17***	1.12	.36		3.09**
어머니의 코칭역량	사회적역량	.25	.10	.22	2.45*	.22	.10	.19	2.09*
	의사표현역량	.18	.07	.25	2.53*	.15	.07	.21	2.21*
	의사존중역량	.10	.08	.12	1.30	.07	.08	.08	.86
	자기성장역량	-.01	.07	-.01	-.08	.01	.07	.01	.12
	성장촉진역량	.06	.08	.09	.78	.01	.08	.02	.15
	관계형성역량	.00	.07	.01	.06	-.04	.07	-.05	-.56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방임					.07	.05	.10	1.51
	과보호·허용					-.07	.05	-.09	-1.48
	한계설정					.11	.05	.14	2.09*
	온정·격려					.18	.09	.19	2.04*
R2수정된 R2)		.34(.32)				.38(.35)			
ΔR^2		-				.04**			
F		17.41***				12.40***			

* $p < .05$, ** $p < .01$, *** $p < .001$

모형 1에서는 사회적역량($\beta = .22, p < .05$), 의사표현역량($\beta = .25, p < .05$)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코칭역량에 양육행동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 요인들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설명력은 38%로 모형 1에 비해 4%p point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p < .01$),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F = 12.40, p < .001$).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 사회적역량($\beta=.19, p<.05$)과 의사표현역량($\beta=.21, p<.05$)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 요인 중에서는 한계설정($\beta=.14, p<.05$)과 온정·격려($\beta=.19, p<.05$)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의사표현역량, 사회적역량과 온정·격려 양육 행동, 한계설정 요인 순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들이 유아의 작은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격려와 실패에 대한 인내, 자존감 증진 노력 등의 사회적역량과 유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질문과 눈높이에 맞는 질문, 의견을 존중해주는 질문 등 유아와의 의사소통역량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높아진다. 자녀에게 일상생활의 규칙과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유아에 대한 수용과 애정표현, 칭찬과 지지 등의 온정과 격려 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 사회적역량과 의사표현역량, 양육행동 요인 중에서는 한계설정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몽골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3~5세 유아를 둔 몽골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220부의 설문을 시행하여 최종 분석에는 210부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코칭역량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27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사회적역량이었으며, 다음으로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관계형성역량, 성장촉진역량, 의사표현역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온정·격려 양육행동이 가

장 높았으며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양육행동 순으로 높았으며, 거부·방임 양육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이 4.07로 높았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또래 관계, 개인적 성향, 사회적 기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57, p<.001$)로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유아의 행동에 대한 한계설정과 온정·격려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거부·방임,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모형 1이 경우,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34%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고, 요인 중에서 사회적역량과 의사표현역량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코칭역량에 양육행동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설명력이 38%로 모형 1과 비교하면 4%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으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코칭역량 하위요인과 전체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의사표현역량, 사회적역량, 성장촉진역량,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과 관계형성역량 순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어머니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자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김양진·도미향, 2022).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몽골 어머니들의 학력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어머니의 코칭역량인 의사표현역량과 사회적역량 및 어머니의 온정·격려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역량과 관계에서는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높으면

개인적 성향,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가 높고 유아의 사회적역량 전체 높음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아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같은 태도를 보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으면 개인적 성향,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는 낮고, 유아의 사회적역량 전체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거부적,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사회관계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 남들에게 좋게 대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학습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는 어머니에게 올바른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성본희, 2018).

연구 대상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온정·격려적이고 자녀의 행동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며, 과보호·허용적이거나 거부·방임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간명주(2015) 연구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유아의 행동에 대한 한계설정과 온정·격려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거부·방임,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거부·통제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유아의 내적 통제는 많아지고, 어머니의 거부·통제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위안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정예뿐, 2003) 연구가 있었다.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어머니의 거부·방임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친사회적이고 또래들에게 잘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가 있다(이지희·문혁준, 2008).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모형 1의 경우,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34%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고, 요인 중에서 사회적역량과 의사표현역량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코칭역량에서 사회적역량과 의사표현역량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양진·도미향, 2022; 김은미, 2021) 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역할인 사회적역량과 의사표현역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은미, 2021). 다음으로 어머니의 코칭역량에 양육행동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설명력이 38%로 모형 1과 비교하면 4%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유아의 작은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격려와 실패에 대한 인내, 자존감 증진 노력 등의 사회적역량과 유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질문과 눈높이에 맞는 질문, 의견을 존중해주는 질문 등 유아와의 의사소통역량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높아진다. 따라서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어머니의 코칭역량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적절한 코칭역량을 발휘할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높아지므로 유아들의 지속 가능한 사회성 발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몽골 어머니의 코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어머니의 코칭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몽골 어머니들에게 부모 코칭역량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점에서 연구를 시행하였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만 3~5세 유아를 둔 몽골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보편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한국 어머니와 몽골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한국과 몽골 어머니의 코칭역량,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몽골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간명주(2015). 유아의 공감 능력, 정서조절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도미향(202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유아의 자아조절력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19(3), 75-98.
- 김은미(2021).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다와자르갈(2012). 한국 거주 몽골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김근주·이경주(2019). 영유아기 부모코칭역량 척도 개발 연구. **부모교육연구**, 12(2), 135-154.
- 딜라프루즈 이버둘라에바(202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분석: 우즈베키스탄 호라즘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남원석(202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적용한 아동 완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6(2), 151-163.
- 배현진(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일상 스트레스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아·엄정애(2016).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0(2), 419-447.
- 성본희(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임·도미향(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4), 5-25.
- 이지희·문혁준(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4), 1-14.
- 이혜숙(2006). 유아기 자녀의 정서 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예뿐(2003). 어머니 특성과 유아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
- Badamsuren(2021). 몽골과 한국 어머니의 양육행동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nkhbat Narantsetseg(2021). 몽골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ntumur Sarantsetseg(2018). 몽골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nzorig Altanzul(2021). 한국과 몽골 아동의 기질 비교.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usu Tumurzaya(2013). 몽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ansaldorj Solongo(2016). 몽골 부모의 자녀 양육관에 관한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atsagbadam Narantsetseg(2018). 한국사회 내 몽골 노동자들의 생활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erdamba Bayarmaa(2015). 한국의 부모와 몽골 부모의 양육 태도 비교. 나사렛대학교 재향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Solongo(2018). 아동 양육에 대한 몽골식 전통 경험에 관한 연구. 내몽골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3(7), 3-46.
- Becker, G. M., DeGroot, M. H., & Marschak, J. (1964). Measuring utility by a single response sequential method. *Behavioral science*, 9(3), 226-232.
- Crane, S. J., Clart,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Ames: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Grusec, Joan E. (2011). Socialization Processes in the Family: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 243-269.
- McClellan, D. E., & Katz, L. G. (1992). Assessing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 checklist of social attributes. *Dimension of Early Childhood*, 21(1), 9-1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360-368.
- Symonds, P. M. (1949). Adolescent fantasy: an investigation of the picture-story method of personality study.

Abstract

The Influence of Mongolian Mother Coaching Competen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Gantuya* · Do, Mi-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nd effect of coaching competency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infants in Mongolian mo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Mongolian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living in South Korea.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were calculated, and Pearson's momentum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coaching ability and infant social development. Among the subfactors o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 infant's social developmen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limit setting, warmth, and encouragemen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rejection, neglect, overprotection, and acceptance. Second, among the factors of the mother's coaching competency, expression of intention and social competency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infants, followed by limit setting, warmth, and encouragement among the factors o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mpact of Mongolian mothers' coaching capabilities and parenting behavior on infants' social development, and present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subsequent studies.

Keywords : Coaching, Mother's coaching competence, Parenting behaviors, Infants, Social development

* Part-time Researcher, Korea Child Care Coaching Associ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tudies, Namseoul University.